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기도회가 열립니다. 저녁

7:30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새벽 6시에 부활절 새벽예배를 드립니다. 새벽예배 중 성찬식이 있습니다. 낮 11시 예배에는 찬양대의 부활절 칸타타가 있고, 오후 1:30 예배에는 부활절 세례식이 있습니다. 교회학교는 11시에 교육관에서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1부 예배는 없습니다.)

삼례은혜교회에서 만든 유기농 딸기 잼을 판매합니다. 한 병에 만원입니다.

오늘 예배 후 구역인사위원회가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4월 4일(토) 오후 1시에 모여 교회 대청소를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사순절 달력에 나와 있는 실천사항들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	행 10:34-43 / 시 118:14-24 고전 15:1-11 / 요 20:1-18	2부 예배	행 3:11-16
----------	--	----------	-----------

오늘 식당 봉사 : 정경례 배삼순 김미현 김진선 권현숙 서미경 권 순 김재환
다음 주 식당봉사 : 김윤정 조병주 최은미 박시내 김명하 오형일 류준모
오늘설거지봉사 : 유아부 중고등부 교사
다음주설거지봉사 : 2남선교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수요성경연구	19:30	교육관
토요성경읽기	10:30	세미나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향해 한 발 한 발 기도하며 걸어가신 주님,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누군가는 감당해야 하지만 다들 외면하는 그 일을 진실한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몸살을 길게 앓고 있는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몸 이곳저곳에서 아픔을 소호하지만 진심으로 그 상처를 보듬는 이가 없습니다. 이 사회는 부유해졌지만 사람들의 자살률은 높아만 갑니다. 주님, 이 사회가 사람이 살만한 사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긴 아픔에서 벗어나 건강함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현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십일조 및 월정현금

강민준	곽상준	최경미	권미숙	김경혜	김기석	김희우	김성우	박유경
김재흥	최희영	김정화	김종문	지명주	김지윤	정영우	김지호	전혜리
김흥기	류건형	이주은	문금석	박상욱	박옥순	박윤숙	박준희	이기분
박초의	변재민	이소혜	심해성	김정숙	안보혜	양상철	박재란	오자영
오진훈	노순옥	유상진	유은정	이경남	이봉옥	이상준	이유선	이재삼
전정현	임승동	백혜숙	임영	정경례	임서영	장동훈	정은선	정한구
왕영순	정현숙	조관행	홍선희	조병무	송양진	차혜심	노미향	최미자
최종원	최형균	강경화	하현철	최성애	한성건	정지혜	한완식	임정자
홍순복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감사헌금

권채영 김경혜 김애경 김인걸 문영혜 김재흥 최희영 김지호 전혜리
 김태정 김향자 박시내 박홍재 우정석 유동호 이재문 유영남 전인섭
 최형균 강경화 황재모 참빛찬양대 무명9

생일감사헌금

임주빈 최현옥

녹색꿈헌금

리 봄 박호규 강영님 무명5

백	혜	숙	박	성	희	박	영	희	조	순	덕
신	진	식	최	경	미	이	재	문	이	소	순
장	영	숙	신	영	신	장	영	숙	최	종	미
박	홍	재	박	홍	재	조	영	순	김	윤	수
권	미	숙	박	미	영	배	상	순	박	효	선
김	금	순	김	금	순	강	순	배	오	복	순
곽	권	희	윤	수	진	윤	미	경	이	정	은
안	홍	숙	오	현	정	노	성	희	이	오	현
김	경	혜	홍	춘	숙	김	경	혜	홍	춘	숙
박	혜	경	박	혜	경	최	숙	화	최	영	혜
김	재	흥	오	자	영						
김	재	흥	송	형	윤						
이	범	석	이	진	영						
이	범	석	곽	상	준						
신	진	식	이	오	복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 순례11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튼튼한 줄기를 얻고
 잃은 흔들려서 스스로
 살아 있는 몸인 것을 증명한다

바람은 오늘도 분다
 수많은 잃은 제각기
 몸을 엮는 하루를 가누고
 들판의 슬픔 하나 들판의 고독 하나
 들판의 고통 하나도
 다른 곳에서 바람에 쏠리며
 자기를 헤집고 있다

피하지 마라
 빈들에 가서 깨닫는 그것
 우리가 늘 흔들리고 있음을

- 오규원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장로 : 한완식 윤석철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우리가 곧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우리가 바로 서면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섭니다.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세우십니다. 주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무너진 것과 진배없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쉽게 손가락질만 하던 우리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우리가 성전(聖殿)이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물고 싶어하실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던 일을 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청파성서학당 / 강의 : 김기석 목사	수요 낮 집회 / 설교: 김기석 목사
	고난주간 기도회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범석 목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김기석 목사	최다미 선생 이종자 집사

3	영접위원	김인걸 이민범 김경연 이명희 오자영 박시내
	헌금위원	김정민 권미숙

예수의 신앙과 힘

... 빌라도는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며 손뼉을 쳤다. “물론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를 놓아주기로 되어 있지만, 놈들에게 너를 요구하도록 만들면 되는 거야.” 그는 시종들에게 옥(獄)에서 바라빠를 끌어내어 오도록 명령을 했다. 그리고 문밖으로 나갔다. 발코니에서 아래쪽에 대고 소리 지르는 그의 말이 똑똑히 들려왔다. “유월절을 맞아 전례대로 너희가 원하는 죄수를 놓아주겠다. 누구를 놓아주랴? 바라빠인가, 예수인가? 살인범 바라빠인가,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인가? 하나를 선택하라!”

군중은 조용해졌다. 빌라도가 의기양양한 얼굴로 돌아왔다. 그는 내 얼굴을 바라보면서, 작은 들짐승처럼 방 안을 오락가락했다. “설마, 그 흉한 살인범을 원하는 않겠지. 그렇지 않은가? 너는 단순히 시기(猜忌) 때문에 고소당한 것일 뿐이거든. 나는 결백한 네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믿는다. 잘 될 거야! 놈들도 어쩔 수 없을 테니까.”

더러운 옷을 입은 바라빠가 눈알을 차갑게 빚내며 끌려왔다. 빌라도는 나와 바라빠를 나란히 이끌고 발코니로 나갔다. 해맑은 아침 햇빛이 대리석 위에서 튀어 오르고 있었다. 바라빠는 눈이 부신 듯 내 등 뒤에서 고개를 숙였다. “자, 분명히 말해라. 바라빠인가? 예수인가?” 빌라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군중의 응답이 들려왔다. 웅장한 코러스처럼, 그들의 정돈된 목소리가 관저의 안팎을 울렸다.

“예수를 십자가에, 예수를 십자가에”

“누구를 원하는가?” 얼굴을 붉히며 빌라도가 외쳤다. 다시 군중의 소리가 울렸다. 한결같은 목소리였다.

“예수를 십자가에, 예수를 십자가에”

목소리에 압도되어 빌라도는 도망치듯 방 안으로 들어갔다. 군중은 더욱 크게 외치기 시작했다.

“예수를 십자가에, 예수를 십자가에”

일사불란한 목소리의 아성(牙聲)은 짐처럼 무너질 것 같지 않았다. 그렇다. 그것은 깨어지지 않는다. 금강석보다도 단단하다. 모든 것을 깨

뜨릴 수 있다. 나라(國家)까지도 절반으로 쪼갬다.

산헤드린의 속셈을 빌라도는 몰랐던 것이다. 그들은 민중의 지도자였다. 그들은 자기네 주장이 민중의 눈앞에서 꺾이는 것을 참고 견딜 수 없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라면, 그들은 모든 것을 할 용의가 있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민중이 바라빠가 아니라 예수를 살려달라고 청원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것임을 알아차리고 마침내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했다. 그들은 민중을 선동했다. 민중을 선동했다는 죄목으로 고소당한 한 사람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민중을 선동했다.

지도자들이 민중을 선동하기 시작하면 역사는 종장에 가깝고, 서둘러서 새 역사 창조를 준비해야 할 것임을 잘 알 일이다. 지도자들의 말이 민중의 목청을 통해 그대로 울려나올 때, 사람들은 앉았던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설 일이다. 지도자들이 ‘민중의 소리’ 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두를 때, 그 앞에 선다는 것은 참으로 무모한 짓이다.

깨어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물러서야 한다. 잘라지지 않기 위해 승부를 포기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나는 솔로몬 왕의 현명한 재판을 기억한다. 역사는 그 재판의 연속일지도 모른다. 가짜 어머니는 칼로 아이를 반쪽 내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주장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 아이는 내 아이라고 한 거짓말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서슴없이 아이를 죽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짜 어머니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 아이가 내 아이라는 진실까지도 포기해버린다.

진리를 가운데 두고 인간들은 재판을 계속해 오고 있다. 신(神)을 가운데 두고 인간들은 소송을 멈추지 않는다.

진리는 우리 편이다. 신은 우리 편이다 - 라고 그들은 끝없이 반복한다.

칼을 빼어 절단을 내어서라도 ‘진리’를 독차지하겠다는 자에게는 그 ‘진리’를 송두리째 내어줄 일이다. 톱으로 잘라서라도 ‘신’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자에게는 그 ‘신’을 송두리째 내어줄 일이다. 진리는 곧 칼이 되고, 신은 곧 불이 되어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역사의 배후에 현명한 솔로몬이 최후의 재판관으로 앉아 있음을 나는 믿는다. 그것은 신앙이다. 증명할 수 없는 대신, 그것은 나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이다. ...